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용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신년메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종윤 목사

20세기 후반기의 역사는 키를 잃은 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한 목적도 없이 잃어버린 배의 키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키를 먼저 찾아 준 자들이 그 민족의 역사를 끌고 가는 기수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자연히 역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키는 연구되고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될 것인지를 물으면서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밭도심에 정배간 죄수로 날마다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던 사도 요한에게 무슨 희망이나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살던 당시의 로마제국도 이젠 막을 내릴 판에 그에겐 비극적인 절망과 좌절 그리고 파멸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산에 기울어진 태양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기록하고 필박 중에서도 그것을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비전을 받아 안고 그것을 믿고 자랑하면서 우는 사자굴 속에서도 포악한 로마 병정들의 칼날 앞에서도 무적의 장수마냥 용감하게 마주 섰습니다. 박해와 죽음을 오히려 신앙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한 자세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본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는 이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한

날 꿈으로만 남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꿈을 받은 자와 거거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교회)들은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굳게 믿고 오늘도 끝장이 나고 있는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세대의

한 모퉁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 꿈 때문에 살고 그 비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인간 혁명이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그롭고 정의의 실현을 열망하며 자유에 대한 기갈이 극심해도 타는 목을 축이려고 쪽박을 들고 간 칼 맑스나 조지 워싱턴, 히로이토를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 주신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여 주신 순례의 길을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진전하는 행보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 이 신천신지(新天地)에 대한 비전을 본 사람은 과거사에 매어 거거서 소일할 수만은 없습니다. 짓과 풀이 쏟아져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을 가로막는 삭막한 사막과 원시림, 가시 돋힌 돌짜밭을 미래를 바라보는 창조적 힘으로 능히 밟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기 저 푸른 하늘과 새 땅을 보십시오. 이 희망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 세웠으니 언제까지 해도 끝나지 않을 탁상공론과 시비와 불평은 집어던지고 세상 일 혼자 맡은 자처럼 고만하거나 텅 비는 만용도 내어 버리고 오로지 겸손과 진실로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께서 문 열고 보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한걸음씩 따라 갑시다.

신년에배와 성찬식

1996년도 첫 주일인 오늘 I, II, III부 예배는 신년감사 예배로 드린다. 새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좀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현금시간에는 신년감사현금을 드린다.

올해의 표어, 생활지침

올해의 표어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따라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로 정했다. 또한 이에 따른 생활지침은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이다. 표어는 한해동안 우리교회 목회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92년도의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으며 93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94년에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95년에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였다.

찬양예배 시 순결서약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 1996년도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오늘 서약식에는 100명의 성도가 참가한다.

'96 청지기수련회

수련회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5시에 시작

1996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오늘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월)까지 개최된다. '성숙한 청지기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 순으로 갖는 이번 수련회는 새벽기도회 후 1층예배실에서 갖게 된다. 단 수요 II부 예배 후 가지는 권사 수련회는 소망부실에서 한다.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될 8일(월)~13일(토)까지 새벽기도회는 5시에 시작하며, 이종윤 목사가 인도한다. 교회에서는 출근하는 직장인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직분자별 수련회 일자와 강사 및 강의제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일시	강사	강의제목
청지기 전원	7일(주일) 찬양예배	이종윤 목사	청지기의 자세
제직	8일(월) 5:30 ~ 6:30	최병호 목사	성숙한 섬김이 있는 제직
교구일꾼	9일(화) 5:30 ~ 6:30	임진태 목사	성숙한 돌봄이 있는 다락방
권사	10일(수) II부 예배 후	박귀환 목사	성숙의 모범이 되는 권사
교회학교 교사	11일(목) 5:30 ~ 6:30	원 호 목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교사
찬양대원	12일(금) 5:30 ~ 6:30	김명현 목사	경건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
전도회 임원	13일(토) 5:30 ~ 6:30	이순환 목사	효과적인 전도회 운영 비결
장로, 안수집사	15일(월) 6:00 ~ 7:00	이종윤 목사	청지기의 모범

우리가 보낸 따뜻한 연말

■ 임마누엘 집을 다녀와서

우리는 하나되어

이조은 (중등부)

임마누엘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겨주던 이들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대부분 정신지체가었는데 반가와하는 몸짓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건넨 인사와 그 해맑은 웃음을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선물로 준비해 왔는데 장소는 매우 비좁고 피아노도 없었으며 모든 여건이 좋질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에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

찬양과 울동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화답하였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 화음을 이룬 찬양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그들 맘 속에, 나의 맘에, 우리 모두의 맘 속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했다. 찬양이 끝나자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고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중요한 것은 지체가 온전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간에 모두가 태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집에서 보낸 짧았으나 소중한 시간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의 추억으로 길이 간직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화평의 예수님을 찬양한다.



■ 경찰병원을 찾아

복음을 선물로

김선미 (권사)

1995년 12월 28일. 세밀의 분주하고 허전한 마음에 눈까지 오고 날씨조차 매우 추웠다. 사회적인 분위기 탓에 연말이 되었어도 외롭고 추운 이들을 찾는 발걸음이 뜰 끊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몇몇 성도들이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찾아 실천해보기로 했다.

교회 전도부의 지원을 받아 찾아간 곳은 경찰병원. 전경 의경 200여 명과 일반환자 3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경찰병원 원목을 만나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전도를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히 움직여야만 했고, 대화의 시간이 길지 않아 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상황에 맞게 말을 꺼내고 전도할 수 있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견줄 수 없는 최대의 값진 선물인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마치고 우리가 건넨 몇마디 말, 남겨두고 온 전도지 몇 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길 기도했다.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나마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나 자라나길 또한 기도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거두실 줄 알고 감사하면서...



■ 구제금 전달

자기를 내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려는 구제위원회에서는 지난 성탄절에 대내외의 구제활동을 폈다.

교회 내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하였고, 반포지역에 사는 극빈자, 소년 소녀 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30 세대에 구제금을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주몽재활학교, 나사로의 집, 다니엘 학교, 사랑의 집에 복음과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끈고한 자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교회를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고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관심이 더 커져야 할 것이다.

▼ 목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며 - 송구영신예배를 마치고 신년인사를 교환하다(1996년 1월 1일 1시 20분)



✦ 순례자 컬럼 ✦

“네 연세가 얼마뇨?”

세월이 가는 것인지 사람이 가고있는 것인지 한 해가 저물고 새해는 어김없이 밝아왔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게 된다. 백년을 넘길 수 없으면서 항상 만년을 꿈꾸고 죽음이란 자기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독수리에게 책임을 당하는 것이 가없는 인생이런가. 미구에 썩어버릴 것들과 불타 버릴 것들을 영원한 것인줄 알고 허덕이며 찾아 해매이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이제는 무덤 너머 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결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고로 철 가치가 없고 더구나 의지할 상대도 되지 못한다.

우리가 맞이하는 희망 찬 새해, 새 아침

■ 새해설계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올해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김명현 목사(11, 12교구 · 찬양위원회 지도)

강원도로 향하는 차에 오른 교역자들은 새해 설계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에서 토의해야 할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며칠간 잠을 못잔 탓에 몸은 피곤하였지만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2월 26일부터 3일간 가진 수련회는 교역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재충전되는 기회였고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기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려는 각자의 결심도 중요했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하며 손을 맞잡

고 기도해 힘쓰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교구, 위원회, 교회학교의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토의를 했던 3일간은 어느 30일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었다.

매일 저녁 7시에 시작한 회의는 교구, 위원회, 교회학교 등에 관해 담당 교역자가 세밀하게 준비한 보고서를 토대로 발제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시정과 보충작업이 거듭되었다.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1996년도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날마다 밤 1시가 넘도록 강행군을 했지만 토론의 열기와

진지함은 우리의 피곤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새로운 안전이 논의되는 중간 중간 이종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목회 경험담은 부교역자들에게 큰 교훈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회의를 마칠 때마다 한마음되어 간절하고도 뜨겁게 드리던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996년도에 우리교회가 좀더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새해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짐한 교역자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간구하였다. 그리고 우리교회의 1996년도의 행보를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시기 때문이다(잠16:9).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랑할만한 일이 있다. 자신의 사회적 위상, 재산, 능력, 자녀 등등... 그 자랑들은 대부분 자기의 관심사와 연관이 있을 것인데, 가령 요즈음 같으면 자녀의 수능시험 점수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자랑거리란 스스로를 매우 즐겁게 한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만큼 합니다.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고, ○○개의 미자립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나 오늘 식사 세 번 했노라, 나 오늘 세수했노라" 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거리가 있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술집이나 다방보다 더 많으니 원!" 교회가 많은 것이 왜 큰일인가? - 그렇다면 교회보다 술집이 더 많아야 하겠는가? - 그보다도 그 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에 교회의 십자가가 목걸이 끝에 매달린

■ 새해 다짐 - 전도

밥 먹듯 당연한 일, 그러나 희생이 따르는 일

이순환 목사(9, 10교구 · 전도위원회 지도)

의 십자가와 차별되지 않고 있음이 문제이다.

* * *

'선교'는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다. 프로그램에 하나로 그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히, 따라서 전도회

나 선교회 활동도 마땅히 해야 한다. 끼니에 밥을 먹듯,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듯 그저 해야 하는 것 - 그것이 선교이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일은 눈물과 희생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를 피를 먹고 자란 교회라 일컫지 않던가. 선교사들과 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열매로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된 것을 교훈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희생해야 할 때다.

* * *

새해, 새 날을 맞아 새 임원진 구성하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사업구상으로 출발하는 우리교회 선교회와 전도회의 간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서서 자연스럽게 감당해가되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1. **다락방장 공부** - 다락방장들은 수요일에 갖는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공과공부는 물론 교회의 소식과 다락방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보충수업을 해서라도 이 모임을 거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2. **교구별 만남의 시간** - 다락방간의 교제와 교구 연합을 위해 교구 전체 모임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연 4회) 갖는다.

3. **다락방 특성 살리기** - 성경공부와 기도회는 물론 유익한 과외활동을 통해 다락방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일에 힘쓴다. 성경쓰기, 기도노트 작성하기 등 이미 좋은 결실을 한 프로그램 외에도 악기 연주, 중창연습 등 특기를 살리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서 찬양예배 시에 소개하거나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본다.

4. **비상연락망** - 올해부터 새로 생긴 간사제도를 활용하여 새가족이 왔을 때 혹은 경조사에 신속하게 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다

■ 제언

내실있는 다락방 활동을 위해

락방장은 보고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여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5. **다락방별 전도목표 정하기** - 올해의 비전 2000운동은 다락방별로 대신자

를 정할 예정이다. 목표를 정하고 모임 때마다 다락방 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6. **전화이용** - 화요일에는 수요일에 참석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목요일에는 금요일에 모이는 다락방 모임을 위해, 토요일에는 주일에 배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다이얼을 돌린다. 특별히 새가족과 시험에 들었거나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듯.

7. **남자다락방을 위하여** - 한달 한 번 이상 모이기를 힘써며 교구 지도 목사나 교구장 혹은 장로들을 초청하여 진행을 의뢰한다.

8. **다락방 안내문** - 서울교회 모든 다락방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유인물을 활용하고, <순례자>에 우리 다락방을 소개한다.

■ 새해 아침 목회자의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일곱가지 소원이 있어 아뢰옵나이다.

그 첫째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숙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둘째는 예배당 지을 터전을 허락하셨으니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건설회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시옵시며

공사가 순조로이 시작되는 일 뿐 아니라

모든 방해물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 셋째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 흠어져 있는 나라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킴치세미나를 하고자 하오니

이 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향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개최하는 신학세미나,

금년에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이 일로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경로대학을 창설하고자 합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신설코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넷째는 동토의 땅 복한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되는 복을 이 민족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섯째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민족 사회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날마다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 여섯째는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일하는 교회로 부족함없도록

서울교회 성도들 개인, 가정,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물뚝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바치며 작정도 하였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배로 비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곱번째는 서울교회 울타리에 들어온 모든 양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많은 열매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육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즐거이 여기며

겸손히 순종하는 성경적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소식

■ **교구 담당 교역자 재조정** - 효과적인 교구 운영을 위해 교구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12개로 분할한 교구의 지도 교역자를 일부 변경하였다. 그간 교역자의 이임 등으로 7, 8교구와 11, 12교구에 합류되었던 9, 10교구를 환원하여 여섯개 지교회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7·8교구는 김명현 목사가, 9·10교구는 이순환 목사가, 10·11교구는 임진태 목사가 각각 지도하게 되었다.

■ **유인물 활용토록(다락방모임 현황, 일년 일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 - 오늘부터 주보에 두가지 유인물이 삽입된다. 하나는 매 주 갖는 다락방 모임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다락방 모임 안내'이다. 1996년도에는 다락방 활동이 좀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유의한 '주간성경공부'이다. 이 교재를 충실히 따르면 을 한해동안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 **매월 첫 주는 헌신예배로** -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예

월	주관부서
2	여전도회 연합회
3	청년부
4	대학부
5	중동부
6	고동부
9	남선교회연합회
10	찬양대원
11	교회학교 교사

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실천하는 표식으로 매월 첫 주 찬양예배를 헌신예배로 드리기로 하였다. 헌신예배는 교회학교 또는 각 부서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행하게 된다. 월별 헌신예배 주관 부서는 도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 **성찬예배에 중·고등학생들도** - 성찬식은 주님이 정하신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의 모든 유익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교회는 절기예배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의 경우 세례를 받은 경우에만 성찬예배를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고등부 학생 전원이 성찬예배에 참석하여 성찬의 의미를 알고 은혜 속에서 장성해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필그림예술선교단 창단예배** -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하는 필그림예술 선교단이 8일(월) 오후 5시에 우리교회에서 창단예배를 드린다. 매주일 찬양예배 후 정기모임을 갖고 매월 지방공연과 연 2회 해외순회공연, 교회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출범하는 이 선교단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입단할 수 있다.

■ **100교회운동 새해에도 계속** -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100교회 운동'이 올해도 계속된다. 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등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개인별로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신청서를 제출하되 1995년도에 참여했던 후원자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社告 지난 호에 게재되었던 계수위원 명단 중 박동춘 집사가 누락되었음을 알립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